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재구성 경험과정연구

-정책적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이 덕 남 *

Study on Experience Courses of Families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Duk-Nam Lee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생존을 위한 탈북 과정에서 남한입국까지 가족해체와 재구성되는 경험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남한 정착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자료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해체하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해체가 아니라 먼저 생사의 기로에서 있는 가족을 살리고,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준비단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방편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 Keywords : 북한이탈주민, 가족해체, 가족재구성, 질적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divides and traces experience courses of families' dis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after settlement respectively, from the course of their escaping North Korea to entering South Korea. Through these results, the study is to propose political implications.

Main data for the study were analyzed through a case study as a qualitative study method.

•저자 : 이덕남

•투고일 : 2013. 10. 15, 심사일 : 2013. 10. 24, 게재확정일 : 2013. 10. 29.

*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targeting eight people from July in 2012 to March in 2013. From the study result, though North Korean refugees seemed to disorganize and leave family relations in the course of escaping North Korea, it was found out that this is not disorganization but a preparatory stage which saves families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makes a chance to live with them someday. In these courses, in order for them to overcome their situations and survive, while repeating dis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families, they used them as a way of sav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t was discovered that these phenomena always occurred simultaneously.

▶ Keywords : North Korean refugees, families' disorganization, families' reorganization, qualitative study method

I. 서 론

지금 지구촌 현황은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은 자유스러움의 호황기에 극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적 현상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되어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는 곳이 있다. 예측하지 못한 생애 사건으로 인해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가족해체와 재구성 이 일어나고 있는 [1] 그 곳은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죽음의 위협에 놓인 그들은 탈출하여 인접국인 중국을 떠돌며, 국적 없는 난민으로, 불법체류자로, 제3국을 경유하여 새로운 조국인 남한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바로 북한이탈주민 [2]들로 그들이 두고 온 조국은 북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1993년까지는 주로 개인 단독 남한입국의 형태가 많았으나 [3], 최근에는 제3국에 남아 있거나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켜 남한에 데려와 재결합하려는 다양한 가족유형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형태로 남한사회에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배경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탈북과 이동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생존을 위해 가족이 재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족이 헤어지고 재결합되는 현상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1].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탈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제이주로 인해 가족해체와 재결합을 경험한 가족 연구결과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이주하여 재결합하는 가족은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한 가족보다, 더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6]. 따라서 '가족'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독특한 가족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7]. 또한 복잡한 가족구조의 관계는 단순히 남한사회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그들만의 문제뿐 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비중이 큰 요인 [8] 이 될 것으로,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 [9]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남한입국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한 연구는 첫째, 북한의 가족생활이나 제도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가족제도 [10], 가정생활문화 [11], 가족법 [12]-[16], 가족주의와 가족을 통한 체제유지 [17]가 있다. 이 연구들은 단순히 북한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만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탐색과는 목적이 다르다.

둘째, 2000년대 들어서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폭되면서, 남한사회에서의 가족 간의 갈등 [18]-[21], 가족관계와 역할변화 [22][20], 적응어려움 [8][23]-[29]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실제 탈북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셋째, 남한에 먼저 온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 제3국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들을 불러들이면서 발생하는 가족의 재결합과 재구성성에 대한 연구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가족 간의 괴리와 갈등이 가장 많은 가족은 청소년 자녀

를 둔 가정과 재결합가족임을 밝혀낸 연구(7)를 비롯하여, 가족의 해체와 재통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의 강한 응집력과 결속력으로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탐색한 이옥자·김현정(3)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재결합 경험을 다루지 못하는 점 등, 재결합한 가족유형이 다양하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가족에 대해 양적·질적 통합적인 방법으로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연구한 이순형과 동료들(1)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따르는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가족의 개념이 탄력적으로 확대되어 놀라운 유연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래에는 잔류가족과 재결합하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레질리언스에 초점을 맞춘 김유정(9)과 김희진(30)의 가족연구가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가족이 탈북하면서 가족관계의 구조가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관계 구조의 경험을 밝힐 수 있는 차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가 다른 남한사회에 들어와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북한과 제3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맘 편할 날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에 배우자나 아이들을 남겨 두고 먼저 탈북을 시도한 경우는 가족을 해체하기 위한 시작일까? 아니다. 대부분 그들은 가족을 탈북 시켜 남한으로 데려 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1). 그래서 남한에서 가족을 이루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족원들이 입국을 동시에 한 경우(21.0%)보다 남한에 온 후, 가족이 재결합된 경우(26.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생존을 위한 탈북 과정에서 남한입국까지 가족해체와 재구성되는 경험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남한정착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경험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경험과정은 무엇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남한정착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경험과정은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1.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가부장주의에 물든 북한의 남편은 아내를 복종을 요구하고 지시자로서 남편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불만이 많아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깊은 애정이 없는 부부 사이일수록, 북한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탈북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혼자 탈북하거나 자녀만을 데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아내나 여성을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적 이동이 쉬운 중하류 층의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려 중국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이탈하면서 가정해체가 가세되었다(31). 특히 국경 인접 주민을 중심으로 식량을 구하려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으로의 도강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해체되고 남겨진 가족은 다시 재구성되는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가족해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삶의 조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가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탈북과정이 오히려 가족을 분리시키고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2000년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사정뿐 아니라, 중국 내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탈농업화는 중국 내부적으로 혼인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중국의 농촌 여성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중국내에서도 동북 지역은 여성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32). 중국 동북의 농촌이나 빈곤 지역의 농민, 장애인, 무직자 등은 탈북 한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 탈북 여성들은 광활한 중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해, 국경 지역을 떠돌다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중국 남자에게 팔려 가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생존유지를 위한 결혼을 도구화로 삼았기 때문에, 기회만 생기면 보다 나은 삶

을 찾아 중국을 떠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새로운 가족이 재구성되지만, 해체 또한 쉽게 이루어진다. 탈북여성들에게 중국에서의 결혼생활은 가족형성이나 부부관계의 유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1). 게다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 공간에게 붙잡혀 강제송환 당하게 되면, 홀로 북한으로 되돌려져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북송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남편과 아이를 중국에 남겨둔 채, 몰래 남한으로 떠나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출신 어머니의 부재는 남은 가족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 해체로 이어지게 하고(33), 또 다른 형태의 가족 재구성을 이루게 하는 원인이 된다.

3. 남한정착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이 태어나 자란 원가족(자신이 태어난 가족)에서는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생식가족(자신이 결혼을 통해 새로 형성하는 가족)에서는 북한이나 중국, 혹은 남한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나 키우고 있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1).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원가족, 즉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 탈북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혼하지 않거나 독신인 경우에는 홀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한 경우에는 생식가족과 함께 탈북하거나 또는 혼자 먼저 탈북한 후, 중국이나 남한에 정착하게 되면 다시 가족들을 찾는다. 이는 북한에 남아 있는 핏줄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으로 괴롭고, 또한 가족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73%가 북한에 형제, 자매가 있으며, 48%는 친부모가 있고, 28%는 자녀가 있다고 한 것을 보면, 탈북 후 가족성원의 사망이나 이별에 의한 가족 해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 형성되는 가족재구성의 형태는 생식가족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탈북여성은 중국에 머무는 동안 생존을 위한 도구화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구성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에 온 후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에서의 가족들과의 애착이나 책임감의 정도에 따라, 가족구조의 형성은 달라진다.

그리고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남한 사람 보다는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동거하는 형태로 살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형태가 많은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로 인해 관계가 제도화되면 생계급여가 중단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구성 또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아, 쉽게 해체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부부가 남한에 와서 살다가 부부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혼을 선택하여(1),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III. 연구방법

1. 질적사례연구

본 연구에서 질적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과정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존의 한계에 내몰려 북한에서부터 가족 해체와 재구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탈북해서도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는 동안까지도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배경이나 경험과정은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북송 경험 횟수, 그리고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재구성경험을 다룬 연구가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 중에서도 Yin(34)의 사례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는 20대 여성과 남성에서부터 3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남성, 60대 남성과 여성, 70세 할머니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다양한 범주, 속성 및 차원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가능하면 연령대별로 고른 분포를 형성하도록 했고, 남녀비율도 각각 반반씩 맞추었다. 성별, 탈북시기, 중국체류기간, 공안대 잡혀간 경험, 북송횟수, 제3국 경유, 남한정착 기간, 가족구조 등의 정보를 먼저 전해 듣고, 가능하면 다양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참여자	1 옥 할 머 니	2 또 순 이 아 줌 마	3 이 희 장	4 김 아 저 씨	5 임 아 저 씨	6 선 아 줌 마	7 애 기 엄 마	8 배 청 년
성별	여	여	남	남	남	여	여	남

나이	70	66	62	58	49	38	28	25
탈북 동기	빈곤	북한 체제 불만	먼저 탈북한 가족 찾으러	먼저 탈북한 형의 권유	북한 체제 불만	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유	먼저 탈북한 누나의 권유
탈북 시기	1999	2000	2000	2000	1999	1999	2000	2001
중국 거주기간	10년	6년	2년	없음	6년	5년	6년	없음
남한입국일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1	2000
북한에서 직업	주부	우체국 직원	군인(소령)	특전사 군인	광산에서 일함	상업	상업	꽃제비
남한에서 직업	무직	무직	노동자	농업	생산직 근로자	회사원	주부	공무원
북한에서 가족관계	남편 사별 1남3녀	남편 사별 2남1녀	장남이며 부인과 1남1녀	모친과 부인과 2남	부인과 1남1녀. 모두 사망	모친과 4자매	모친과 3자매	모친과 1남2녀
남한에서 가족관계	2녀	없음	부인(조선족)과 1남1녀	동거녀와 동거녀 아들	동거녀와 동거녀 딸	남편과 2녀	남편과 1녀	모친과 누나2명
북한에 있는 가족	큰딸 1명	아들 2명	부모와 형제들	부인과 아들 2명	모친과 누나2명	모친과 언니 여동생	모친과 언니여동생	없음
중국에 있는 가족	없음	딸 1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누나1명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7개월간을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2~3시간 정도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익명을 사용할 것과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동의서 서명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가 편안하

게 생각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Yin(34)의 사례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사례연구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례를 시간적 과정의 흐름을 통해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분석의 첫 단계로는 코딩을 하였으며, 코딩 이후 분석은 ①사건의 전체적 흐름 파악 ②사건의 부분적 요소확인 ③각 부분의 구조확인 ④참여자 개개인의 행위분석 ⑤연구의 전체 맥락 속에서 사건들을 비교하는(35)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사례 안의 주제와 사례에 대한 세밀한 기술, 그리고 사례의 주제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5.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적 이슈

이 연구의 질 검증에 대한 자료의 삼각화 방법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자료와 사례담당자에 대한 면접자료, 사례 기록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적연구에서의 윤리적 이슈로는 연구에 대해 밝히기/속이기,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 연구참여 보상, 비밀보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사실을 밝혔으며, 연구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구했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조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1.1 북한의 참혹한 현실

1990년대 초중반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했고, 흰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어 보지 못하고 항상 말건 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했다. 그나마 그것도 없어 못 먹는 사람들은 시름시름 굶다가 너무 기운이 없다보니, 사람 입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했다. 참여자 중에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어머니와 누이가 국경을 넘게 되면서 가족과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12살 때, 꽃제비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걸 먹고 지나가면 너무 배가 고프은 아이들이 그걸 빼앗아 도망치는데 그런 애들을 꽃제비라고 해요(꽃제비가 되어, 배청년).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쓸라’하는 조선 속담 있제? 저는 북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숨만 헉헉 하며 쉬는 사람한테 쉬파리가 앉아서 눈이고 콧구멍이고 벌거지가 버글버글 기어 다니는 거 봤어요(산 입에 거미줄 치라, 또순 이아줌마).

1.2 가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비정한 땅

배가 너무 고프 남의 땅의 옥수수 하나를 훔쳤다고 공개처형을 하는 곳. 어린 딸이 가장이 되어 장사도 해보고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 중국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곳. 물론 중국 땅에는 인신매매당할 수 있고, 브로커에게 성폭행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들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굶어 죽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어 가족과 헤어져 북한 땅을 미련없이 떠난다.

우리는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가난한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현실을 위해 중국에 가기로 했지요(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선아줌마).

1.3 북한체제 불만족

북한에서는 집안 토대가 좋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고, 당 간부가 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또순이 아줌마는 뒷 배경이 없어 다른 직원들 죄까지 뒤집어쓰고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우리 직원들은 일절 화폐교환이 된다는 소식을 몰랐는데, 당 간부 부인들이 화폐 교환소식을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체신국에 자금을 많이 한 거예요. 체신국에 넣어둔 돈은 화폐교환이 일어나도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남편도 없는 배경이 가장 약한 제게 모두 덮어씌워져, 감옥 생활하게 됐어요(뒷 배경 없는 탓에 죄를 뒤집어 씌, 또순이아줌마).

1.4 살아남기 위해 헤어져야 하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고향 산천을 뒤로 하고, 달빛이 비추는 밤길을 따라 두만강을 건넌다. 두만강을

건너는 일은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북한에 이대로 남아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이다. 금술이 좋았던 참여자는 아내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고향을 떠나면서도 이별을 속여야만 했다.

한 가족이 두만강을 건너다가 아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할머니가 손을 놓쳐 등등 떠내려갔어요. 할머니는 떠내려가면서도 “너희들만이라도 빨리 가라! 어서 가라! 나한테 오지 마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떠내려가다가 다리 기둥에 걸렸는데 경비대들이 나와서 늙은 게 어디가냐고 하니까 발로 차는데 결국 사망했다고 했어요(할머니가 물에 떠내려감, 또순이아줌마).

1.5 생계형으로 선택하는 결혼

북한에서는 애정이나 집안과의 맺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제난이 심각하여 먹을 게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남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이혼하고 도구적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식이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나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맺어진 부부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며, 오랜 동안 유지 되지 못하고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기도 한다.

우리 남동생이 일찍 상처하여 혼자 살아가는데, 가난한 북한여자들이 시집왔는가 하면 금세 바뀌어지고 해서 항상 걱정이었어요(불안정한 부부관계, 옥할머니).

2.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2.1 가족 찾아 삼만리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가족들이 두만강을 건너겠다는 말을 듣고 참여자는 처자식을 찾으러 중국 땅으로 건너 가, 몇 달을 헤매 다니면서 가족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발이 부르드도록 돌아다녔다. 겨우 중국 친척집을 수소문해서 가 봤더니, 아내, 아들, 딸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 있다고 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중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회장은 부인이 딸을 중국 돈 3천원을 받고 인신매매단에 팔아 넘겼다는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었다.

딸은 인신매매단에 팔려갔다. 아~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중국에서 내 가족을 찾아, 이회장).

2.2 가면가족을 구성

광활한 중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젊은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매대 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 생존의 도구로서 중국남자와 사실혼을 선택한 북한여성을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신매매단에서 풀렸다고 해도 중국 땅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여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춘부로 일을 하게 되거나 가난한 중국남자와 결혼을 선택하는 길 밖에 없어요(신분 안전 위해 중국남성과 결혼, 또순이 아줌마).

2.3 언제 잡힐지 모르는 떠돌이 생활에서도 가족 위한 터전 마련

중국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신변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언제 공안에게 체포되어 강제 복송될 지 몰라, 잠을 자면서도 배게 밑에 칼을 숨겨 두고 잔다는 참여자. 살자고 도강한 중국에서 생각지 않게 온 가족이 뿔뿔히 헤어져 살아야 하는 처지를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가족이 모여 살기를 바라며 하루라도 빨리 초가집이라도 마련하여 가족들을 불러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이회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드디어 조그마한 집한 채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언제 공안대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니, 잠을 잘 때도 항상 배게 밑에 칼을 넣고 잤다(배게 밑에 칼을 숨기고, 입아저씨).

‘아! 이젠 나 혼자 뿐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더라고. 하지만 집이 있으면 언체라도 모여 살 수 있을 것 같아 1년 간 오직 돈 만 벌었다(꽃기는 삶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 집 마련, 이회장).

2.4 복송당해 가족에게 피해주느니 죽음선택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도강한 중국에서의 참여자들의 신세는 바람 앞에 등불이나 마찬가지였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해 주고, 승진시켜주는 혜택이 있어서, 참여자들은 중국에서는 사냥감의 먹이나 마찬가지이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은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 깊은 산 속에 꼭꼭 숨어 보기도 하지만, 신고당해 잡자기 공안대에 붙잡혔다. 강제송환 되어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나면 군에 간 아들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복송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복송되면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중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모조리 빼앗기게

된다. 때문에 신발 바닥에 감추거나 치약 속에 넣거나, 그리고 여자들은 자궁이나 항문 속에 감추어 빼앗기지 않으려고 별난 방법까지 동원해 본다. 이러한 방법까지 써 가면서 돈을 간직하여 가족들 식량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가족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나는 복송시킨다고 하면 무조건 죽으려고 했어요. 차에 떨어져 죽던 열차에서 이마를 박고 죽던 무조건 죽으려고 했어요. 사흘 동안 물 한모금도 안마셨어요(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음, 또순이 아줌마).

돈을 비니류에 맡아가지고 항문에 넣은 것이 제일 안전해요. 자궁에 넣으면 다 들킨데요. 모두 옷 벗기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게 한대요(돈을 항문에 감추고 복송 당함, 애기엄마).

2.5 가족과 만나기 위해 재차 탈북

가족이 해체되는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되는 날을 고대하며, 이국땅에서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하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들이닥친 공안대에 붙잡혀 복송되어 버린 참여자들은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특히 군인 장교나 당원 출신은 처절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기도 한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을 재촉도 해 보지만,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탈출하여 다시 탈북을 시도하기도 한다.

탈출하여 맥없이 누워 있는데 눈앞에 소 한 마리가 떡하니 있어요. 그래 내 소를 끌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죽어 갖고, 간이랑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막 먹었지요. 사람이 아니고 정신을 잃은 거지요. 오직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밖에는....(소를 잡아먹고 살아남, 입아저씨).

3. 남한에 정착한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3.1 가족과의 만남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행

재차 탈북하여 살아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 신변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한국행을 서두른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보지 못한 조국에 새 희망을 품고 저승과 이승이 공존하는 공포의 순간들을 수 없이 겪으면서, 자유를 향해 고통을 이겨내며 긴 여정의 시간들을 재촉하고 있다. 항문암이었던 할아버지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남한에서 죽고 싶다면 한국행을

결행했다고 한다.

막대기처럼 여윈 할아버지는 항문암 말기였는데 한국 땅 밟는 게 소원이었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했지만 총각들이 둘러싸고 하면서 한국까지 이끌고 왔죠(한국 땅 밟는 게 소원인 암환자 할아버지, 옥할머니).

3.2 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가족

어린 딸을 업고 자신의 먹거리를 자식에게 먹이면서 자유를 향한 한국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자기 한 몸도 힘든 상황인데, 자식까지 들쳐 멘 참여자가 힘에 부쳐 넘어지기를 수십 번 하자, 보다 못한 일행이 중국에서 낳은 자식을 쓸데없이 데려 왔나며 야단쳤다. 하지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운명의 가족이기에 자식을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 도망쳐서 맘 편히 살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아를 떼어놓고 오지 왜 데려왔냐고 하지만 자식 놓고 온 애미가 어떻게 밭 뺏고 편히 잘 수 있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 선이준마).

3.3 남한에 정착했지만 마음은 흩어진 가족에게 있음

홀로 남한 입국한 경우는 언어만 통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낯설고 새롭다. 텅 빈 집에 홀로 있다 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 미치도록 그리워 견딜 수가 없다. 한 참여자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 남은 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인지는 모르나, 중국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두만강을 건넜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자신의 신분상, 은밀하게 지내야 하는 신세이다 보니 마음대로 수소문하면서 어린 딸을 찾아 헤맬 수도 없었다. 단지, 바람결에 스치듯 누군가가 장마당에서 애 업고 지나갔다는 말만 흘러들었을 뿐이다. 어느 날, 개가 새끼를 찾아 헤매는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고, 짐승보다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른다.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짐승도 제 새끼를 찾아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애미로구나!('마음이' 영화를 보고 통곡함, 또순이아준마).

3.4 핏줄을 찾고자 결심함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가족과 분리되어 중국으로 간 참여자들은 이국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또

다른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또 다시 생존하기 위해 한국행을 계획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정을 내려놓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에서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가족을 데려오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기도 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인 정착금을 바다내면서까지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 굶어 죽지 않도록 가족이라는 끈을 이어가고 있다. 참여자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집착하는 것일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저 내 핏줄이라 그러는거지요(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가족, 이희장).

뼈빠지게 고생해도 한 달에 140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아끼고 아껴 북한 가족들한테 몇 백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악착같이 돈 벌어 송금, 배청년).

3.5. 기록치 않은 남한생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들은 적응을 잘 하는 편이지만, 남성들은 체제가 다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남한에 온 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갑자기 외국 가서 돈 벌어 온다며 미국으로 떠난다 한다. 이곳도 불경기라 남한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 탈북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더욱이 10대의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자라온 배경이 달라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너무 앞서가는 자식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아 가족 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더욱 심해진 큰딸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여, 그동안 기가 죽을까 염려되어 자식 위해 숨겨 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북한사람이고, 너를 한국에 데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등 등... 큰딸이 이야기를 듣고 영영 울더니, 참여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세대 차이에 의한 부모노릇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아들이 한국에선 도저히 일할게 없고 월급도 적어서 호주로 떠난다고 해요. 호주에서 일 하면 여기 월급보다 3배는 더 많다고...(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탈남, 이희장).

엄마는 북한 사람이다. 중국에 널 두고 엄마 혼자 올 수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들쳐 업고 도망쳤다(초등생 딸에게 탈북자 신분을 숨김, 선이준마).

3.6 종합상자가 된 가족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왕복이 불가능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오로지 한 번 나오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참여자들은 더 이상은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신고 당해 복송 될 염려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한껏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남한 입국 후 그들은 북한이나 제 3국에 남아 있는 헤어진 원가족이나 생식가족들을 불러 모아 함께 살기도 하고, 남한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끼리 임시동거 형태나 사실혼관계로 이루어 살기도 했다. 그들의 다양한 가족구조는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를 비롯해, 북한의 자녀, 남편과 아내의 자녀 등으로 재구성된 복합적인 가족형태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남한사회적응 문제를 의식하여, 북한에 잔류해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지 않고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만 함으로써, 장기적인 이산가족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상자가 모여 재구성된 복합가족이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자식 내 핏줄처럼 생각되어 외로운 타향살이에 의지가 된다. 그래서 딱히 직장이 없는 아내의 아들에게 숨겨 놓은 쌈짓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주어 택배사업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북한보다, 국적 없어 설움 받는 중국보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떳떳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남한살이에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본다.

‘러브인아시아’ 다문화에 대한 거 볼 때는 진짜 마음이 서글퍼져요.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시집 왔어도 언제라도 부모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가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야 하는가!(편도만 존재하는 기러기가족, 또순이아줌마).

아내의 아들이 좋은 기술이 없어 고민하던 참에 택배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고, 아껴 둔 돈을 내 주었지요. 오토바이 사는데 보태라고(아내의 아들 택배사업에 도움을 줌, 이 회장).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탈북과정에서 남한 정착까지 가족해체와 재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 4명과 남성 4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남한 정착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

성 경험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북한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참혹한 현실은 1990년대 초중반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했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가족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따라서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족들이 하나, 둘 씩,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가족해체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가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비정한 땅에서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탈북을 결행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에서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생존수단으로 결혼을 선택하거나,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가정이 생겨났다. 이러한 형태의 부부관계는 불안정하고 신뢰감이 낮아, 가족구조가 쉽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경험과정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가족들이 두만강을 건너갔다는 말을 듣고, 참여자는 처자식을 찾으러 중국 땅으로 건너간다. 수소문해서 찾은 결과, 아내, 아들, 딸이 모두 뿔뿔이 헤어져 버렸고 그나마 딸은 인신매매단에 팔려갔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는다. 중국에서의 이러한 가족해체는 생존의 도구로서 중국남자와의 사실혼을 통해, 또 다른 방법으로 가족재구성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재구성은 탈출의 기회만 노리는 한국행으로 인해, 다시 해체로 반복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남한에 정착한 후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과정을 살펴보면, 고통스러운 수용소 생활 속에서 재차 탈북을 시도한 참여자들은 불안한 중국생활을 청산하고 한국행을 서두른다. 먼저 남한에 입국한 참여자들은 소중한 정착금을 바다내면서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가족을 데려와, 가족합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비제도화 된 결혼 형태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가족해체와 재구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해체와 재구성은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정착하는 동안까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살리고자,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건너 간 어머니는 가족을 해체한 것일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는 선택이었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삶의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다. 즉 가족관계가 해체되

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에 입국한 후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거나, 돈을 보내 굶어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면서 한시라도 핏줄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은 시간이 지나 공간이 바뀌어도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해체와 재구성이 쉽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나 동거 형태로 맺어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결속력이 약해, 이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순형 외(1)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제도가 오히려 제도화된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혼과 가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정착 이후, 참여자들은 남한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 대부분을 브로커에게 주고, 2~3년 동안을 가족 찾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했고, 가족을 만난 이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가족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의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을 거쳐 오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남한 입국 후에는 또 다른 유형의 가족을 재구성하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결혼유형과 가족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해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족 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탈북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일에 지나지 않고 보수도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젊은 탈북남성들은 미국으로 노동이주 하는 탈남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윤인진(36)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능한 한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하던 일과 유사한 직종을 남한에서의 직업이나 기술로 연계하고 개발하여, 한국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탈북과정에서 남한입국까지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경험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다루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어도 가족해체와 재구성의 반복과정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삼고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된 사례로 인해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사례를 후속 연구로 남겨 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Lee Soon-hyeong, Kim Chang-dae, and Jin Mi-jeong, "Family Disorgan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Vol. 5, Korean unification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 [2] As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ed 「act on security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ttlement support of them」 in 1997, the term called "North Korean refugee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nd entered South Korea came to be used officially. The appellation named "North Korean defectors" is generally used by mass media and general people, but Ministry of Unification changed it into "new settlers" because the term of "North Korean defectors" gives negativeness and resistance. Lately, as they came to be recognized as a group of immigrants, the appellation "North Korean immigrants" was once used. In this study, though the term "North Korean refugees" as an official legal term is used objectively, the study makes it clear that proper names were used according to flows of the contexts.
- [3] Lee Ok-ja and Kim Hyeon-gyeong, Vigorous Efforts for Reunification of Families of New Settlers: Centered on Cases of Families of New Settler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 15, No. 2, pp. 365-387, 2007.
- [4] Pottinger, A. M, Stair, A. G., & Brown, S. W, "A Counseling Framework for Caribbean Children and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Migratory Separation and Reunion." International Journal

- of Counseling 30, pp. 12-24, 2008.
- [5] Sciarra, D. T. "Intrafamilial Separation in the Immigrant Family: Implications for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27, No. 18, pp. 31-41, 1999.
- [6]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trospective Analysis of Exped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Vol. 10, No. 2, pp. 107-122, 2004.
- [7] An Yeon-jin, "Qualitative Study on Family Cultur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a thesis of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24, Feb. 2002.
- [8] Lee Soon-hyeong, Cho Su-cheol, Kim Chang-dae, and Jin Mi-jeong,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Unification of Famil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Vol. 3,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174-177, 2007.
- [9] Kim Yu-jeong, "Unification Study on Support Measures on Reunified Families of North Korean Refugees: Centered on Resilience perspective," Vol.15, No. 1, pp. 100-128, 2011.
- [10] Lee Yun-hee and Park Hyeon-seon, "Study on Change Courses of Family System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Course of Socialism of North Korea," society and culture parts among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studies(V), National Unification Ministry, 1990.
- [11] Lee Gi-chun, Lee Gi-young, Lee Eun-young, Lee Soon-young, Kim Dae-nyeon, Park Young-suk, and Choi Yeon-sil, "Home Life Culture of North Korea Seeing before the Unif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482, 2001
- [12] Park Young-ja, "Structure and Change of North Korea System after the Disaster," unification studies, Vol. 25, pp. 33-67, 2007.
- [13] Yoon Mi Ryang, "Status and Role of North Korean Women," women and families of North Korea, Kyungin Publishing, 2006.
- [14] Oh Yu-seok and Gu Su-mi, "Lives and Consciousness Changes of Wome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n Cities: Chungji, Sinuiju, and Hyesan, Hanul Academy, 2004.
- [15] Lee Mi-gyeong, "Perspective of Status Changes of North Korean Women after Economic Difficulties See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1, pp. 33-55, 2006.
- [16] Im Soon-hee, "Economic Difficulties and North Korean Women," unification studies, Vol. 25, pp.5-32, 2007.
- [17] Park Hyeon-sun, "Modern North Korean Society and Families," Hanul Academy, 2003.
- [18] Park Mi-seok and Lee Jong-nam, "Difficulties of Families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and Coping Methods Followed by Them,"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pp. 3-73, 1999.
- [19] Lee Gi-young, "Literary Consideration on Conflicts of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science study of Sungkyul University, Vol.6, pp. 389-404, 1999.
- [20] Kim Young-su, "Family problems of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science study, Vol. 9, pp.102-117, 2000.
- [21] Kim Young-su, "Living in South Korea Society of North Korean Refugees - Real Situation of Social Adaptation and Family Problems," breaking new ground in unification, a sourcebook of the fourth unification dialogue venue: Nice Friends, 2001.
- [22] Lee Gi-young and Sung Hyang-suk, "Survey Study on Awareness of Family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ed on Household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wareness of Their Spouses," the academic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47, pp. 243-271, 2001.

- [23] Jang Hye-gyeong and Kim Young-ran, "Family Stability, Social Adaptation, and Roles of Women of Famil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 252, 2000.
- [24] Lee Geum-soon, Kang Sin-chang, Kim Byeong-ro, Kim Su-am, An Hye-young, Oh Seung-ryeol, Yoon Yeo-sang, Lee U-young, Im Soon-hee, and Choi Ui-cheol, "Study on Adapt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report of the joint study assignment of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3.
- [25] Chun U-taek, Hong Chang-young, and Um Jin-seop, "Actual Condition Survey of Adaptation Lives in South Korean Society of North Korean Defectors," unification study, Vol. 7, No. 1, Unification Institute of Yeonse University, pp. 155-208, 2003.
- [26] Yoon In-jin, "Social Adaptation of Famil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pproach of Strength Perspective," a sourcebook of sociological meeting of Korean Sociology Association, pp. 21-26, 2005.
- [27] Yoon In-jin, "Social Adaptation and Unification of North Korean Immigrants," autumn Korean sociology, pp. 81-104, 2006.
- [28] Kim Young-hee, "Family type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Difficulties of Family Adaptation," Kyungnam University North Korea graduate school, a master's thesis, Aug. 2006.
- [29] Jin Mi-jeong and Lee Soon-hyeong,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of New Settlers According to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5, No. 5, pp. 63-74, 2007.
- [30] Kim Hee-jin, "Exploratory Study on Famili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on Resilience of North Korean Families," policy science study, Vol. 21, No. 2, pp. 29-50, 2012
- [31] Kim Jin-soon, "Home lives of Christian North Korean Defectors: Centered on Conjugal Relations," a doctoral dissertation of Christian Divinity School of Baekseok University, p. 28, Feb. 2011.
- [32] Baek Young-ok, "Study on Actual Conditions and Support Method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China,"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 6, No. 1, pp. 241-264, 2002.
- [33] Oh Won-whan, "Study on Identities of North Korean Young Defectors: From Escaping North Korea to Escaping South Korea," a doctoral dissertation of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p. 101, Aug. 2011.
- [34]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3.
- [35] Erickson, F,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cademic Press, 1992.
- [36] Yoon In-jin, "North Korean Immigrants: Lives and Consciousness of them, and Policy on Settlement Support," series of research of Ansan Foundation, Vol. 280, Jipmoondang, p. 320, 2009.

저 자 소개



이 덕 남

2012: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Email : waseda88@hanmail.net